

불자 세상보기

국회의석수 과연 늘려야 하나



정천구 서울대지대대석좌교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석수를 조정하는 문제를 주요 쟁점의 하나로 삼고 있다. 어찌까지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등 정치개혁을 하자는 다짐들은 어디가고 의원수를 얼마나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각자 기득권을 챙기는데 바쁘다.

의석수 문제가 나온 것은 작년 현재(憲裁)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으나 인구편차를 2대 1이하로 하라는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표의 등가성'이란 투표자 한명이 가지는 영향력의 차이가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간의 인구 편차가 2:1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는 쪼개야 하고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는 합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재의 결정을 적용하여 20

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범위를 244 ~ 249석으로 발표했다. 그 세부기준은 국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현재의 300석(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명) 중 어디를 늘리고 줄이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기득권만 내려놓으면 국회의석수 내에서 조정하면 된다. 정치가 부실했던 이탈리아도 최근 315석의 의석을 100석으로 축소했다. 개혁의지만 있으면 하나도 어려울 것 없다고 본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선거 제도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자는 안을 내 놓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39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도 내놓았다. 양당구조의 독과점을 종식시키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하여 "반(反)혁신, 반(反)개혁적 발상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의석 300석은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은 새정치연합이 반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회의석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국민 여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헌

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고려도 부족해 보인다. 비효율적이고 싸움만 일삼는 19대 국회를 보아 온 국민대다수는 오히려 국회의석을 과감히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혁파하는 강력한 정치개혁을 요구한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자는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정체가 불분명한 자들이나 돈으로 국회에 진출하려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가 입고 있다.

국회의석수를 300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2년 2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증설하였다.

사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석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만 하고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300인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정신이 있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18대까지는 이 정신을 지켜서 299명을 넘지 않았던 것이다. 19

대에 와서 여여대표 합의로 300명이 되었다. 그러나 상한선 없이 마음대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의원수가 너무 많으면 협의하고 토론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같이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을 하기 위해 소수의 축소된 기구를 구성하고 거기다 대부분을 위임해서 결국 독재체제로 전락한다. 북한이 그렇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정원이 687명이고 1년 중 1~2일만 활동한다. 나머지 기간은 10인 내외의 상임위원회에게 거의 전권을 위임한다. 그것을 민주집중제라고 미화한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의석수는 300인을 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조만간 통일이 되어 인구비례로 북한지역에서 15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통일한국의 전체 8천만 인구에서 국회의석수는 300+150=450명이 된다. 미국은 인구 3억1800만 명에 하원의원이 435명이고 일본은 인구 1억2000만 명에 중의원이 480명이다. 이들에 비할 때 한국은 현재의 의원수도 너무 많지 않은가? 지금은 의석수를 줄이고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때다.

社說

불교학술지 논문심사 달라져야 한다

등재지 제도가 생겨나면서 현행 학술지 대부분은 논문을 심사해 게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한국불교학계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최근 불교학술지의 논문 심사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들이 잇달아 나왔다.

권오민 경상대 교수와 장재진 동명대 교수는 최근 '문학/사학/철학' 제42호에서 불교학계 논문심사 문제를 지적했다.

권오민 교수는 "현행 학술지 심사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봉쇄됐다. 이로 인해 심사자가 마치 논문 지도교수와 같은 훈계를 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논문심사자가 마치 지도교수처럼 훈계와 지시를 했다는 불만과 함께 불교학계의 폐쇄적 권위주의를 버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재진 교수는 응용·비교·융복합 등 범주에서는 불교학계의 인력풀이 약하기에 이를 중재할 편집위원회의 세밀한 역할을 주문했다. '심사청문회' 등 공식 절차가 규정으로 포함되는 등 분정 대응방법도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진 교수는 "논문 심사자는 같은 연구자로서 애정 어린 충고와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은 풍토가 조성되려면 심사자나 투고자가 대척점에 놓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학계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등재지 제도상 젊은 학자들이 비등재지에 중박게재를 피해야 하며 논문을 투고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중진학자는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불교학술지가 대거 탈락한 이후 평가 게재와 심사과정에 대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학계 전반에 논쟁이 활발히 이어지고 이를 통한 학문발전이 진행돼야 한다. 학자 개인의 학문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하고 공정성을 갖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올바른 논문 심사는 좋은 학술지를 만들고 불교학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교무금 높이려면 재정 투명화가 필수

사찰 신도들중 보시금 납부 의향이 있는 비율은 높지만 보시금이 과연 적절히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의구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가섭)는 11월 4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발표한 '사찰 신도의 보시 및 기부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보시금 납부 이유도 '부처님 가피에 대한 보답'(60.2%), '사찰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 보람돼'(53.3%), '가족들의 평안 및 행복 위해'(52.9%), '배우자나 가족 사찰 신도회원 등 개인적 관계로'(9.4%),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2.7%)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시금 납부 의향이 없다고 말한 5.7%(51명) 가운데 15.7%가 사찰서 보시금을 적절히 사용하는지 확인 못해서라고 답해 신도들이 재정 투명화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신도들이 사찰 교무금을 내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신도들은 역시 재정투명화를 이유로 꼽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사찰의 보시금과 교무금은 사찰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불사도 진행하고, 신도들이 편안히 수행과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보정재는 분명 투명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신도들이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만큼 교무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투명화가 필수이자 우선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자. 자신이 낸 보시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 때 신도들은 소속 사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

발언대

할로윈 데이에 대한 단상

할로윈 데이는 일종의 외국의 절기이자 명절이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할로윈 데이를 축제로 즐기는 인구가 많아졌다. 심지어는 유치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할 정도다. 하지만 할로윈 데이는 일부에게는 일탈과 방종의 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민족 절기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외국의 절기를 따라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왔다.

(편집자주)

가치관 부재로 부작용 우려



덕산 스님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10월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할로윈데이'를 기다리는 젊은 이들의 열광은 대단했다. 주변의 청년들만 봐도 할로윈데이에 친구들과 어디를 가겠다, 무엇을 하겠다 계획하며 들뜬 모습이 있었다. 젊은이들의 축제 문화에 신선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민족명절은 등한시 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또한 축제가 끝나고 난 뒤 쏟아져 나오는 할로윈데이 부작용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SNS 상에는 할로윈데이에 때 발생한 폭행사건, 도난, 성추행, 쓰레기 문제 등 크고 작은 시비로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10월 31일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지역 자체가 축제의 장이 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할로윈데이의 양면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술에 취해 차를 파손하는가 하면,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외국의 축제를 들여오며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채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젊은이들이 축제의 장을 함께 즐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올바른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

"문화는 정신을 이어가야"



홍운 스님 불교민속학회 회장

할로윈은 500년 경 켈트족 문화에서 시작됐다. 한해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죽은자들이 1년간 사람 몸에 머물다 내세로 가기에 그 때 무서운 복장을 하고 죽은자의 영혼이 산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세시풍속으로 '동지'가 있다. 절기상 밤이 가장 긴 날로 이로 인해 생겨난 풍속이 있다. 팔죽을 먹으며 귀신을 쫓고 부적을 붙이기도 한다. 집안 어른에게 버선을 드리며 다가올 봄의 풍요를 기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양문화가 우리 사회에 급속히 침투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전통문화는 민족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다. 우리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전통인 것이다. 할로윈에 귀신복장을 하고 노는 젊은이들을 봐도 동지에 헌말을 하거나 팔죽을 먹는 젊은이들을 보기는 쉽지 않다. 서양문화의 무분별한 침투로 이러한 전통문화, 더 나아가 한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나라 문화부터 지킵시다

포털사이트 네티즌 의견

vjya****

우리나라 명절이 뭐가 있죠? 설, 추석, 단오 등 민속명절이 많아요. 근데 이 민속문화를 지키기도 전에 서양의 놀이 문화를 할로윈데이라고 하며 유난이네요. 미국 가서 이거 해보니 재밌네요? 우리 나라 문화부터 지킵시다!

kdud****

할로윈데이는 그날 하루 날 놓고 막달자라는 느낌이 강하다. 공부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그날 하루 맘급이라도 재밌게 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저만 큼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도 상권과 경제도 녹색불이 켜지니

maya****

놀던지 말던지 관심 없는데 질서 좀 지켜가며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길 더럽히는 거 너무 싫어요. 비단 이 사람들 뿐 아니라 어느 축제나 유원지 등지도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흔한 쓰레기불법투기 극심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페이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발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민족사 주주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석지현 스님, 《벽암록》에 이어 《종용록》 역주 해설본 출간!

'지혜의 칼' (벽암록)과 더불어 '훈훈한 봄바람' (종용록)을 곁들이지 않으면 완벽한 선자(禪者)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두 공안집(公案集)을 통해 간화선(看話禪)과 묵조선(默照禪)의 차이를 동시에 이해하면 수행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 석지현 스님

종용록

전5권 18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펴냄 (남권 판에 불가)

칭기즈칸의 참모 아을초재가 최초로 간행!
중국의 역사와 사상을 총망라한 지혜의 보고!
국내 최초 완역 해설본!!

벽암록

전5권 145,000원 // 신국판 양장 // 민족사 펴냄

선어록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